

〈구렁덩덩신선비〉와 인도네시아 〈뱀 남자〉에 보이는 샤먼의 설화적 변모*

신연우**

목 차

- I. 머리말
- II. 〈뱀 남자〉 설화의 샤먼적 속성
- III. 샤먼적 능력과 기능의 설화적 변모
- IV. 맺음말

[국문초록]

〈구렁덩덩신선비〉 설화는 우리에게뿐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유명하다. 아르네-토슨 유형 분류에 ‘AT425, 잃어버린 남편을 찾아서(The Search for the Lost Husband)’ 항으로 올라 있다. 엔젠과 니게마이어는 1937년에 인도네시아의 몰루카 제도의 세람 섬에 거주하는 원시부족에게서 〈뱀 남자〉 또는 〈뱀 남편〉이라는 몇 편의 설화를 조사 보고했다. 이 원시부족에게서 전해지는 〈뱀 남자〉설화에는 우리 〈구렁덩덩신선비〉나 그리스, 프랑스의 동종 민담과 같은 화소를 가지고 있다. 죽음과 재생의 대립과 조화라는 주제를 더 잘 드러내는 것으로 이해하고 그 과정을 보이고자 한다. 이를 통해 〈구렁덩덩신선비〉 설화의 의미도 보다 명료해지기를 기대한다. 〈구렁덩덩신선비〉는 신화로 해석되기도 하고 결혼과 여성 성숙의 심리학으로 해석되기도 한다. 어쩌서 그런가를 〈뱀 남자〉설화를 매개로 해서 이해할 수 있다.

동물 또는 자연과 인간이 하나였던 시절이 있었다. 이들은 서로 결혼할 수 있었다. 인간이 동물성을 벗어버리는 계기가 있었다. 이는 음식으로 대표되는 바 문화라고 지칭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인간과 자연은 완전히 분리되었다. 그러나 죽음이라는 실존의 문제를 더욱 의식하게 된 인간은 죽음을 극복할 수 있는 샤먼의 존재를 요구했다. 동물과 인간의 체험을 두루 가진 사람이 샤먼의 역할을 맡았다. 이 설화는 세람 섬의 주민들이 오랜 세월을 거쳐 겪었을 이러한 역사적 전개를 종합해 설화화한 역사로 이해할 수 있다. 이런 설화가 짧고 단

* 이 연구는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내학술연구비 지원으로 수행됨(과제번호: U2022-0086).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

순하면서도 깊이 있는 흥미를 가지고 있는 이유가 바로 이런 데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구렁덩덩 신선비>설화는 무당의 모습을 이원화하여 보여주었다. 신랑의 서울로의 여행은 그가 사면적 기능에서 멀어져감을 보여준다. 후반부의 뱀신랑은 신적인 기능을 잃고 그저 아내를 그리워하는 평범한 남자로 나타나고 오히려 어머니에게 맏인 아들로 보인다. 색시의 여행은 갈수록 과거의 자기를 버리고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는 과정을 보여주어 크게 대조된다. 그런데 그 과정이 결국은 시집에 자기를 맞추는 여성적 삶의 과정으로 변모되었다.

<뱀 신랑>이 창세신화적 면모를 떨구지 못한 채 사면의 기능을 세상에 나타내는 설화라면, <구렁덩덩 신선비> 설화는 사면적 역할이 약화되며 결혼의 과정으로 치환되는 양상을 보여준다. 이는 한편으로는 우리나라의 경우 “바리데기”에서 보여주는 강력한 사면 신화로 강화되는 반면에, 이 이야기처럼 입사식의 민담으로 약화되는 양상을 보이는 쪽으로 가는 이원화가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주제어] <구렁덩덩신선비>, <뱀남자>, 인도네시아 세람섬, <잃어버린 남편을 찾아서>, 사면

I. 머리말

<구렁덩덩신선비> 설화는 우리에게뿐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유명하다. 아르네-톰슨 유형분류에 ‘AT425, 잃어버린 남편을 찾아서(The Search for the Lost Husband)’ 항으로 올라 있다. 여기에 속하는 설화 중 가장 잘 알려진 것은 그리스 신화로 전하는 <큐피드와 푸시케(싸이키)>일 것이다.¹⁾ 그런데 이 항목명에서 보듯이, “이 설화의 다양한 각편들은 하나로 수렴된다. 소녀는 결혼을 강요받게 되고 남편이 괴물이나 마음에 맞지 않는 동물이라고 하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여주인공은 이 결혼에 대해 만족스럽게 여길 뿐만 아니라 곧바로 그 이상한 남편을 사랑하게 된다.”²⁾는 이야기이다. 그래서 이 설화에 대한 연구는 흔히 여성의 결혼이나 여성 심리의 변화, 뱀의 성적 상징 등으로 이해되는 경우가 많다.³⁾

1) <큐피드와 싸이키>라는 명칭은 2C 아플레이우스의 『황금당나귀』에서 비롯되었다. <큐피드와 싸이키>는 『황금당나귀』 4장~6장에 걸쳐 이야기되는데 5장의 제목이 『신화의 시작, 큐피드와 프쉬케의 사랑이야기』이다.

루키우스 아플레이우스, 송병선 역, 『황금당나귀』(매직하우스, 2008).

스티스 톰슨, 윤승준 최광식 공역, 『설화학원론』(계명문화사, 1992), 119쪽.

2) 스티스 톰슨, 위의 책, 120쪽.

여기에 대해 서대석은 일찍부터 이 설화가 ‘농경생산신 신화’로서 신맞이굿의 내용이 본질이라고 보았다. 구렁이를 水神이고 색시는 무당으로, 사라진 신을 무당이 다시 찾는 이야기이며, 구렁이의 허물과 뱀새는 황폐한 대지와 지상의 재해이며 이로부터 사회를 구원하는 의미라고 풀었다.⁴⁾ 김호성도 이 설화가 “업신화”를 서사적으로 구성한 것이라고 밝혔다.⁵⁾ 그러나 이 설화는 신화로만 해석하기에는 무리라는 지적이 있다. 김환화가 지적한 대로 신맞이는 이 설화의 골격적이고 해학적인 분위기와 너무도 동떨어져 보이는 것이다.⁶⁾

또한 서대석이 그리스 신화 〈싸이키와 큐피드〉와 비교했던 것처럼, 김환화는 분석심리학의 관점에서 프랑스의 민담 〈뱀과 포도재배자의 딸〉과 비교 연구를 했다. 스티스 톰슨은 서유럽에서 이미 50편 이상의 각편이 보고되었다고 하고 인도나 뉴멕시코 등에서 소수 보이지만, “원시부족들에게서는 이러한 이야기가 발견되지 않는다.”⁷⁾고 했다. 그런데 엔젠과 니게마이어는 1937년에 인도네시아의 몰루카 제도의 세람 섬에 거주하는 원시부족에게서 〈뱀 남자〉 또는 〈뱀 남편〉이라는 몇 편의 설화를 조사 보고했다.⁸⁾ 이 원시부족에게서 전해지는 〈뱀 남자〉설화에는 우리 〈구렁덩덩신선비〉나 그리스, 프랑스의 동중 민담과 같은 화소를 가지고 있다. 이에 대해 김현선이 비교연구를 했다. 그는 두 설화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밝히고 뱀과 여자를 자연과 문화의 대립과 공존으로 파악하고 토테미즘의 속성으로 이끌어갔다.⁹⁾ 본고

-
- 3) 박의숙, 「〈구렁덩덩신선비〉의 상징성 고찰」, 『국어국문학』 25(문창어문학회, 1988), 223~234쪽. 신해진, 「〈구렁덩덩신선비의 상징성-여성의식세계를 중심으로〉」, 『한국민속학』 27(민속학회, 1995), 209쪽, 221쪽.
이기대, 「〈구렁덩덩신선비〉의 심리적 고찰」, 『우리어문학회 편, 『한국문학과 심리주의』(우리어문학회, 2001), 311~341쪽.
신연우, 「〈구렁덩덩신선비〉의 결혼 상징과 의미」,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25(한국고전여성문학학회, 2012), 121~150쪽.
- 4) 서대석, 「『구렁덩덩 신선비』의 신화적 성격」, 『고전문학연구』 제3집(한국고전문학연구회, 1986), 172~227쪽. 임석제가 이미 간략하게 이를 지적했다. 임석제, 「구렁덩덩 신선비 설화와 큐피드 싸이키 설화와의 대비」, 구비문학국제연구발표회 개요, 인하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32~36쪽.
- 5) 김호성, 「〈구렁덩덩신선비〉의 업신화적 성격」, 『한국무속학』 38집(한국무속학회, 2019), 85~111쪽.
- 6) 김환화, 「『구렁덩덩신선비』와 외국 뱀신랑설화의 서사구조와 상징성에 대한 비교문화적 고찰」, 『동화와 번역』 4(건국대 동화와번역연구소, 2002), 101~123쪽.
- 7) 스티스 톰슨, 앞의 책, 121쪽.
- 8) 아돌프 엔젠·헤르만 니게마이어, 이해정 옮김, 『하이누엘레 신화』(뮤진트리, 2014), 462~487쪽. 세람 섬은 ‘하이누엘레’ 신화로도 유명한 곳이다.

는 이 설화가 농경신 구렁이를 맞이하는 의례나 레비스트로스 식 자연과 문화의 대립으로 보기보다는 죽음과 재생의 대립과 조화라는 주제를 더 잘 드러내는 것으로 이해하고 그 과정을 보이고자 한다. 이를 통해 〈구렁덩덩신선비〉 설화의 의미도 보다 명료해지기를 기대한다. 〈구렁덩덩신선비〉는 신화로 해석되기도 하고 결혼과 여성 성숙의 심리학으로 해석되기도 한다. 어째서 그런가를 〈뱀 남자〉설화를 매개로 해서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II. 〈뱀 남자〉 설화의 샤먼적 속성

엔젠과 니게마이어의 책에는 3장 동물 아래에 다양한 뱀 이야기가 들어 있다. 우리가 볼 〈뱀 남자〉 설화는 220-226번의 7편이다(466~480쪽). 각 편의 내용을 간략히 정리해서 공통의 문제점을 추출하기로 한다. 220번 이야기가 가장 많은 화소를 가지고 있다. 220. 〈뱀 남자〉를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화소를 정리해보인다.

- A. 막내딸만 뱀남자와 결혼한다.
- B. 아내가 뱀껍질을 태운다.
- C. 남자가 알과 피낭열매 주고 떠난다.
- D. 언니들이 막내를 바닷물 속으로 빠뜨려 죽인다.
- E. 물 속에서 악어가 막내를 돌봐준다.
- F. 피낭나무가 자라고 그 위에 닭이 올라앉는다.
- G. 남편이 돌아오는 길에 닭이 우는 소리에 아내가 죽은 것을 안다.
- H. 악어에게 선물을 주고 아내를 구한다.
- I. 막내가 숨겨온 칼로 언니들을 죽인다.
- J. 남자가 뱀기름으로 언니들을 살린다.

9) 김현선, 「〈구렁덩덩신선비〉와 서세랍 섬 〈뱀남자〉(Der Schlangenmann)의 비교연구」(한국구비문학회 2012년 추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2012.11.17. 경기대학교), 61~92쪽.

K. 뱀을 구해달라는 큰언니가 뱀을 안으려다 죽는다.

L. 남편이 뱀기름으로 언니를 살린다.

우리쪽 〈구렁덩덩신선비〉 설화의 화소를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한국구비문학대계』에는 이 설화가 ‘611-1 뱀에게 시집간 셋째 딸’ 항목에 모두 49편이 있지만 변이, 축소된 것을 제외하고, 서사단락을 구비하는 것은 18편 정도이다.¹⁰⁾

1. 할머니가 구렁이를 낳는다.
2. 장자네 셋째 딸만 신선비를 낳았다고 말한다.
3. 구렁이가 셋째 딸에게 청혼한다.
4. 결혼한 구렁이는 허물을 벗고 훌륭한 신랑이 된다.
5. 허물을 잘 간수하라는 금기를 신부에게 주고 과거보러 떠난다.
6. 색시는 허물을 저고리 동정에 감추었으나 언니들이 빼앗아 허물을 태운다.
7. 선비가 돌아오지 않는다.
8. 색시가 중차림을 하고 신랑을 찾아 떠난다.

10) 18편은 다음과 같다.

1. 대계 1-9. 200-205쪽. 오수영 구연. 구렁덩덩 신선비
2. 대계 1-9. 453-460. 권은순 구연. 구렁덩덩 신선비
3. 대계 4-5. 162-165. 박용애 구연. 구렁덩덩 소선비
4. 대계 4-5. 355-362. 황필녀 구연. 구렁덩덩 소선비
5. 대계 4-6. 178-188. 유조숙 구연. 구렁덩덩 신선비
6. 대계 4-1. 357-360. 손양분 구연. 구렁이를 낳은 할머니
7. 대계 5-3. 466-473. 김계님 구연. 구렁덩덩 신선비
8. 대계 5-4. 827-833. 고아지 구연. 구렁덩덩 신선비
9. 대계 5-5. 395-397. 김학기 구연. 구렁덩덩 시선부
10. 대계 5-7. 174-182. 김관례 구연. 구렁덩덩 신선비
11. 대계 7-6. 578-588. 조유란 구연. 뱀서방
12. 대계 7-10. 631-640. 안금옥 구연. 뱀 아들의 결혼.
13. 대계 7-12. 140-144. 최금순 구연. 구렁이 허물 벗은 선비
14. 대계 8-5. 50-54. 이남이 구연. 뱀신랑
15. 대계 8-7. 638-645. 김태영 구연. 뱀 신랑과 열녀 부인
16. 대계 8-9. 999-1006. 김순이 구연. 동동시선부
17. 대계 8-10. 597-606. 김수영 구연. 구렁선비
18. 대계 8-13. 558-564. 우두남 구연. 구렁덩덩 신선비

9. 여정의 시련 (빨래, 까치, 돼지, 논일 밭일 등)
10. 색시가 물(샘)으로 빠진다.
11. 들에서 새 보는 아이에게 물어 신랑을 만난다.
12. 후처와의 경쟁(호랑이 눈썹, 물길어오기 등)에서 이겨 신랑과 잘 살게 된다.

보다시피 많은 부분이 공통된다. 인간 여성과 뱀 남성이 혼인한다. 언니들은 거부하는 혼인을 막내는 용인한다. 아내가 뱀 껍질을 태우자 남편이 집을 떠난다. 언니들의 시기심이 작동한다. 남편이 돌아와 아내와 화합한다. 이러한 공통점이 있어서 두 설화를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없다. 전혀 관계를 맺어본 일이 없었을 두 문화에 이만큼이나 공통된 부분을 공유하는 설화가 있다는 것이 뜻밖이기에 더욱 흥미가 생기게 된다.

220번 설화를 기준으로 221~226번 설화에 나타나는 화소의 들고남을 보이면 아래와 같다.

	220	221	222	223	224	225	226
A.	0	(0) ≠ 뱀	(0) 개구리	0	0	0	
B.	0	×	0	0	0	0(개미가 먹음)	
C.	×	0	0	×		정신없고 쓰러진 남편을 남은 뱀껍질을 문질러 살려냄.	
D.	0	0	0	×			
E.	0	×	×	×			
F.	×	0	0	×			
G.	×	0	0	×			
H.	0	×	0	×			
I.	0	0	0	×			
J.	×	×	×	×			
K.	×	×	×	0	0		
L.	×	×	×	0	0		

정리는 이렇게 하였지만 사실은 각편에 따라 구체적인 내용은 조금씩 또는 상당히 다르다. 다른 점에 관하여는 조금 뒤에 더 검토하기로 한다. 225번은 B 아래의 “다음 부분은 앞의 이야기와 거의 같다. 만언니는 파톨라-뱀과 결혼했으나 잡아먹혔다. 장인이 죽은 다음에 뱀 남자가 족장이 되었다.”라고 엔젠이 주를 달아놓았다. 226번은 이야기 전개 자체가 간략화되어 있다. 따라서 220-224의 5편으로 논의를 진행한다.

모든 이야기는 막내가 뱀 또는 개구리 청년(223번)과 결혼하는 것으로 시작하고 곧이어 뱀(개구리) 껍질을 태우거나 버린다. 이로 인해 남자가 떠난다. 이때 파낭나무 열매와 알 하나를 준다. 막내를 시기한 언니들이 막내를 물에 빠뜨려 죽인다. 남편이 돌아와 아내를 살려낸다. 220~223은 아내를 살리는 화소가 들어 있다. 220번과 224번은 뱀을 따라갔다 죽은 큰언니를 다시 살려내는 이야기가 끝이다.

이 이야기는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 우리의 〈구렁덩덩신선비〉와 비교하면 막내딸이 뱀 신랑과 혼인한다는 큰 틀은 동일하지만, 언니들이 막내를 죽이기까지 하고 또 죽은 언니를 다시 살려낸다는 화소가 우리에게만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을 생각하며 다음 사항을 주목해볼 수 있다. 첫째로 뱀과 결혼한 막내딸이 바닷물에 빠져 죽었다가 살아난다는 점과, 221-223은 언니들을 죽이는 것으로 끝나지만 220과 224는 언니를 다시 살리는 것으로 끝난다는 점이다. 둘째로 우리 설화와 마찬가지로, 거의 모든 각편에서 공통적으로 뱀 껍질을 태우는 화소가 나타난다는 점이다. 먼저 언니를 살리는 뱀 남자를 살펴보자.

한 달 뒤, 뱀 남자는 그 뱀을 찾으러 길을 떠났다. 그는 한 곳에서 큰언니의 유골을 발견했다. 그는 뼈들을 모아서 뱀기름으로 문질렀다. 그러자 큰 언니가 다시 살아났다.(220번, 469쪽)

그들은 세미나를 찾아다니다가 길에서 뼈를 보았다. 그들은 그 뼈가 세미네의 뼈라고 생각하고 뼈들을 주워모아 제자리에 맞춰놓고 그 위에 뱀기름을 부으며 뱀 남자가 말했다. “일어나라!” 그러자 세미네는 다시 살아났다. 그러나 직접 걸어

가기에는 아직 너무 힘이 없어서 뱀 남자가 그녀를 어깨에 짊어지고 집으로 돌아왔다.(224번, 475쪽)

언니를 살리는 것을 확대하여 아내를 살리는 것까지 포함해볼 필요가 있다. 아내를 살리는 이야기까지 포함하면 220, 221, 223의 세 편, 언니를 살리는 것은 220, 224, 225의 세 편, 쓰러진 남편을 살리는 것은 226의 한 편이다. 이렇게 보면 이 이야기군은 뱀남자와 결혼한다는 화소로부터 시작하여 아내나 언니 또는 남편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이야기라고 설정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정도로는 요령부득이기는 마찬가지이다. 그래서 이 요약부분이 가장 선명하게 드러난 각편인 224번을 상세히 분석하기로 한다. 224.〈막내 딸이 뱀과 결혼하다.〉의 내용을 간추린다.

강 왼쪽에 7자매가, 오른쪽에 7마리 뱀들이 살았다. 뱀들이 청혼했으나 막내딸만이 받아들었다. 그녀가 음식을 권하자 막내 뱀이 남자로 변해서 함께 먹었다. 아내는 뱀껍질을 태웠다. 언니들이 신랑을 보고 막내를 시기했다. 큰언니 재미네가 뱀을 잡아 와 음식을 주었으나 먹지 않았다. 같이 누웠으나 뱀은 그녀를 먹었다. 뱀남자와 막내가 그녀를 찾아다니다가 뼈를 보고 주워 모으고 뱀기름을 뿌리고 일어나라고 하자 재미네는 다시 살아났다.

이 이야기는 상당히 간략해서 아내가 죽는 화소가 없다. 아내를 살리는 부분이 공동되게 나타나는 220, 222, 223 중 223의 그 부분을 함께 보자.

막내딸은 물속으로 가라앉았다. 그러나 그녀는 머리카락이 바위에 휘감겨 밖으로 나오지 못했다. 그녀는 매우 오랫동안 바닷물 속에 있었으며 그 사이에 피낭 열매에서 나무가 자라나고 앞에서는 수탉이 부화했다. 수탉은 매일 나무 위에 올라 앉아 꼬끼오 하고 울었다. 6척의 배가 그 앞을 지나갔으나, 아무도 닭이 우는 소리를 듣지 못했다. 마침내 7번째 배가 왔으며, 수탉은 다시 꼬끼오 하고 울었다. 그

배를 타고 있던 개구리 남편은 수탉이 우는 소리를 들었다. 그리고 피낭나무와 수탉을 보고, 자신의 아내가 바다 속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남편은 즉시 물속으로 들어가 아내를 위로 데리고 올라왔다.

이 부분의 이미지는 두 가지 점에서 주목된다. 하나는 바다 위에 나무 한 그루가 있고 그 나무 위에 수탉이 앉아 우는 그림이다. 바다 위에 떠오른 한 그루 나무나 나무 위에 앉아 우는 한 마리 수탉은 우리에게 어떤 원초적인 세계상의 이미지를 떠오르게 한다. 제주도 초감제 베포도업침에서는 옛날옛적 하늘과 땅이 하나로 붙어 있던 시절에 하늘과 땅이 갈라지는 모습을 이렇게 말한다.

“천왕득은 목을 들러, 지왕득은 늘겔 치와, 인왕득은 출릴 칠 때, 갑을 동방 너엄 들러 먼동 금동이 터 올 때”¹¹⁾

“흐룻날은 동방으로 머릴 들러 서방으로 초릴 들러 남방으로 늘겔 들러 북방으로 늘겔 들러”¹²⁾

이런 점에서 세람 섬의 뱀남자 설화는 옛적의 신화적 상상과 연관되어 있다는 생각을 해볼 수 있다. 그러나 신화적 문맥은 많이 사라져 있다.

두 번째로는 죽은 자를 살려내는 모습에 눈이 간다. 깊은 물 속에 머리카락이 휘감겨 나오지 못하는 망자를 불러내오는 것은 우리의 사령곳에서 사제자의 모습과 역할을 떠올리게 한다. 뱀 남자는 죽은 자를 살려 내는 특별한 능력을 가진 자인 것이다.

신화적인 속성과 죽은 자를 살려내는 사제자의 모습을 이 설화가 가지고 있다는 점을 기반으로 하여 224번 설화를 다시 살펴보자.

이 설화는 강 왼쪽의 7 자매와 오른쪽의 7 뱀이 살고 있다고 이야기를 시

11) 정주병 구연본, 김현선, 『한국의 창세신화』(길벗, 1994), 429쪽.

12) 강일생 구연본, 김현선, 『한국의 창세신화』, 422쪽.

참고로, 근대 시인 이육사도 시 〈광야〉에서 “까마득한 날에/ 하늘이 처음 열리고/ 여덟 닭 우는 소리 들렸으랴” 하고 닭을 창세와 연관지었다.

작한다. 이들 사이에 강이 있다는 것은 인간과 뱀의 구분이 있다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뱀과 소녀들은 이야기를 나누고 뱀은 청혼을 하는 것으로 보아 두 집단 사이의 차이는 근본적이지 않다. 외모라든가 어떤 특징 정도의 차이로 인식할 수 있다. 동물과 인간은 말을 나누고 결혼하는 사이이니 근본적인 구분이 없었다. 인간과 동물이 차이가 없는 신화시대를 나타내는 세계적으로 보편적인 구성이기도 하다.

이 중에 막내 우아나이가 뱀과 결혼한다. 우아나이는 음식을 만들어 뱀남자에게 권한다. 그는 “우아나리와 함께 음식을 먹기 위해 뱀 껍질을 벗었다.”는 진술은 주목할만하다. 뱀은 이제 나는 “다시 뱀이 될 수 없고 영원히 남자로 있게 될 거요.”하고 말한다. 이 부분은 동물이었던 뱀이 인간이 되는 과정을 말하고 있으며 그 과정에 음식이 개입했다고 하는 것이다. 동물과도 같았던 인간이 동물성을 벗게 되었다고 이해한다면 그 과정에 개입한 것은 바로 음식으로 대변되는 문화이다.

막내딸인 우아나이가 만든 음식을 생각해보면, 인간이 문화를 통해서 동물에서 인간으로 변할 수 있었던 것에는 여성의 역할이 컸다는 역사적 사실을 재진술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우아나이가 7형제 중의 막내라는 사실도 의미가 있다. 위의 6 언니는 과거의 역사이다. 이제 새로운 사회 질서가 필요하게 되었으며 구질서는 물러나야 하게 되었다. 막내는 구질서의 마지막 존재이면서 새로운 질서를 가져올 수 있는 연속성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야기의 다음 단계는 언니들이 막내의 남자를 보고 부러워하며 시기하게 된다. 그러나 이미 새로운 사회가 되었기에 언니의 뜻대로 되지 않는다. 언니는 동생처럼 뱀남자를 얻고 싶어한다. 뱀에게 음식을 주었으나 뱀은 먹지 않았고 같이 누웠으나 뱀은 언니를 삼켜버리고 만다. 이는 다음 단계의 역사를 진술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제 더 이상 동물과 인간이 자연스럽게 통하던 시대가 아니게 된 것이다. 이미 문화를 통해서 인간과 동물은 멀리 떨어졌다. 마치 길가메쉬 서사시에서 半동물이어서 동물들이 스스럼 없이 다가왔던 엔키두가 인간과 어울려 성교를 하자 동물들이 더이상 가까이 오지 않게 되었다는 이야기와 통한다. “그의 몸은 느려서 예전처럼 빠를 수는 없었으나 ‘이

해력'은 사람처럼 넓어졌다.”¹³⁾ 동물들과 살 수 없게 된 엔키두는 사람 사는 마을로 내려오고 맥주와 빵을 먹는다.

언니는 구세대의 인물이므로 새로운 질서를 알지 못했다. 과거와 같은 방법으로 살고자 했기에 뱀에게 먹힌다. 동물 또는 자연과 인간의 거리가 그만큼 멀어진 시대가 되었음을 이러한 방식으로 표현하고 있다. 그럼에도 인간은 자연과 통하는 길을 찾는다.

또 하나 언급해야 할 것은 문화로서 해결될 수 없는 실존의 문제인 죽음에 부딪힌다는 점이다. 인간이 동물과 하나였을 때에는 죽음에 대한 인식도 크게 비극적이지 않았을 것이다. 문화가 발달하고 이해력이 넓어지자 죽음이 커다란 문제가 되었고 이를 극복할 심리적인 기제가 필요하게 되었다고 보인다. 이 문제에 대한 해결은 동물에서 사람이 되었던 남자가 가져올 수 있다. 동물과 사람이 하나였던 체험을 아직도 가지고 있는 사람에 의해 죽었던 언니는 다시 살아난다. 이 남자는 우리가 샤먼이라고 부르는 사람이다.¹⁴⁾

“언니의 뼈들을 제자리에 맞추어놓고 그 위에 뱀기름을 부으면서 뱀남자는 말했다. ‘일어나라!’ 그러나 제미네는 다시 살아났다.” 이 광경은 전형적인 샤만의 이미지를 전달해준다. 자신의 몸과 뼈를 해체당하고 다시 살아나는 체험에 대해서는 여러 사례가 있다. “이런 경우 후보자는 자기의 해골을 바라보는 등의 삶과 부활의 모티프를 체험하게”¹⁵⁾ 된다. 아메리카 대륙 블랙풋족의 이야기에서는 들소와 결혼한 여자 이야기가 있다. 이 여자가 들소에 의해 죽은 아버지의 뼈를 찾아서 그 위에 담요를 깐 다음 소생의 노래를 부르

13) 김산해, 『최초의 신화 길가메쉬 서사시』, 휴머니스트, 2005, 87쪽.

14) 샤먼의 정의는 아직까지 명료하지 않다. 병의형과 탈혼형의 두 가지가 기본이지만, 넓은 범위에서 죽은 자를 살리는 것도 샤먼의 역할로 인정한다. 엘리야데는 만주의 니산 샤먼을 소개한다. 사냥을 나가 죽은 젊은이를 되살리러 사자의 나라로 내려가는 무녀 이야기이다. 또한 본문에 보였듯이 아메리카 블랙풋 인디언 신화에서도 죽은 아버지를 살려낸 딸이 죽은 꿈을 춤과 노래로 살려내는 의례를 시작한 샤먼으로 인정된다. 본고에서는 이렇듯 샤먼을 넓은 의미로 이해한다.

이필영, 『샤머니즘의 종교사상』(한남대학교 출판부, 1988), 9~40쪽.

엘리아데, 이윤기 옮김, 『샤머니즘』(까치, 1992), 227쪽.

조셉 캠벨, 이진구 옮김, 『신의 가면1, 원시신화』(까치, 2003), 323~338쪽.

15) 미르치아 엘리아데, 이윤기 옮김, 『샤머니즘』(까치, 1992), 61쪽.

우노 하르바, 박재양 옮김, 『샤머니즘의 세계』(보고사, 2014), 439쪽, 442쪽 참조: 동물의 뼈를 간직하는 것도 인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신들은 뼈에 새로이 살이 생겨나게 할 수 있다고 믿었다.”

자 아버지가 다시 살아난다. 들소들은 자기들이 죽었을 때도 그렇게 해달라고 한다. 황소 머리와 들소 가죽을 입고 춤을 추고 노래를 불러서 자신들을 다시 살려달라고 한다.¹⁶⁾ 이것은 인디언들이 행하는 들소춤의 유래이고 이 의례를 행하는 사람을 우리는 샤먼이라 한다.

224번 이야기를 간략히 정리하자. 동물 또는 자연과 인간이 하나였던 시절이 있었다. 이들은 서로 결혼할 수 있었다. 인간이 동물성을 벗어버리는 계기가 있었다. 이는 음식으로 대표되는 바 문화라고 지칭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인간과 자연은 완전히 분리되었다. 그러나 죽음이라는 실존의 문제를 더욱 의식하게 된 인간은 죽음을 극복할 수 있는 샤먼의 존재를 요구했다. 동물과 인간의 체험을 두루 가진 사람이 샤먼의 역할을 맡았다.¹⁷⁾

이 설화는 세람 섬의 주민들이 오랜 세월을 거쳐 겪었을 이러한 역사적 전개를 종합해 설화화한 역사로 이해할 수 있다. 이런 설화가 짧고 단순하면 서도 깊이 있는 흥미를 가지고 있는 이유가 바로 이런 데 있을 것으로 생각 된다.

224번 이야기에는 다른 이야기에 들어 있는, 뱀과 결혼한 막내딸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부분이 없다. 이제까지의 이해를 기초로 하여 그 부분을 이해해보자. 뱀남자는 막내딸과 결혼했고 막내는 뱀껍질을 태워버렸다. 이는 뱀남자가 동물성, 원시성을 탈피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들은 문화를 알고 소유하게 된 집단이다. 언니들은 막내를 시기하여 바다에 빠뜨려 죽인다. 이는 언니 집단과 새로운 문화 집단 간의 갈등과 알력이 심각했음을 말한다고 보아도 좋다. 껍질을 태우자 남편이 “이제 언니들이 시기해서 당신을 죽이려 할 거야.”라고 말하는 것은 이 갈등에 대한 의식이 이미 있었음을 말 해준다.

16) 조셉 캠벨, 이진구 옮김, 『신의 가면 1, 원시신화』(까치, 2003), 325~328쪽.

17) 이에 대해서는 조셉 캠벨의 연구가 도움이 된다. 그는 프랑스 남부의 구석기 동굴인 ‘트루아 프레르’의 벽화로 그려져 있는 동물-인간에 대해서, ‘실제로 신이고, 동시에 신의 현현이다. 그는 또한 의례를 행하고 있는 샤먼 속에서 육화되기도 한다.’고 적었다. 신화 시대의 사람들은 동물을 통하여 영원한 실체와 본질을 찾았다. 이를 사람에게 실현하는 것이 샤먼의 역할이기도 했다고 보인다. 조셉 캠벨, 앞의 책, 357쪽.

언니 집단은 아직 다수이다. 막내의 문화는 아직 어리고 약하다. 언니들은 이 새로운 집단을 공격했고 막내는 죽었다. 남편은 이 문제를 해결할 새로운 방법을 찾는다. 알 하나와 피낭열매 하나를 아내에게 준다. 이들을 가진 채 죽은 아내는 그대로 죽지 않을 것이다. 알과 나무 열매는 그녀가 가진 문화의 씨앗들이다. 이는 다시 발견되고 되살아날 것이다. 남편은 얼마 뒤 돌아온다. 그는 세계를 태초의 모습으로 되돌려 놓는다는 방법을 알아냈다.

바다 위에 자라나는 나무 한 그루는 바로 세계 나무이다. 바다는 아무 것도 존재하지 않았던 태초의 모습이며 나무는 그 곳이 세계의 중심 공간임을 나타낸다. 거기서 닭은 세계의 새벽이 왔음을 알리는 울음을 운다. 최초의 상태로 돌아감으로써 죽은 자도 다시 최초의 상태, 즉 삶으로 돌아간다. 샤먼은 이러한 세계관을 만들고 시행한 사람이다.

이러한 체험이 있었기에 언니들을 쉽게 살려낼 수 있다. 이제 샤먼은 갈라진 세계에 살면서 자연과 인간, 동물과 인간, 죽은자와 산자 등의 구분을 일정 부분 소거하는 기능을 갖는다.

그러나 여섯 언니들은 막내에 의해 죽게 된다. 이는 문면으로는 단순히 보복 차원으로 설정되지만 그 이면은 바로 막내의 문화에 의해 구세대가 사라짐을 말해준다. 이들은 새로운 시대에 맞추어 다른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 이것 또한 샤먼의 기능이기도 하다. 샤먼은 그 사회의 질서를 잡는 역할을 했다. 220번 설화에서 여섯 언니들을 다 죽이고 살렸다가 다시 죽은 큰언니를 또 살려내는 것은 샤먼의 기능이 안정적인 상태에 접어들었음을 보여준다. 이렇게 되면 이제 종교의 단계로 접어들게 될 것으로 생각된다.

한 편, 221, 222, 223의 이야기들은 언니들을 죽이는 것으로 끝을 낸다. 이는 220에서 언니들을 죽였다가 다시 살려내거나 224에서 죽은 언니를 살려내는 결말과 꽤 다르다. 이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220이나 224는 결말의 화합이 인상적이다. 특히 224에서는 언니들을 죽이는 부분이 없어서 갈등이 심하지 않다. 220에서는 막내가 여섯 언니들을 죽이고 남자가 다시 살려낸다. 큰 언니가 다시 죽지만 뱀남자가 다시 살려낸다. 이는中间的 갈등에도 불구하고 세계와의 화합을 강조하는 결말이다. 자

이는 세계와의 화합을 추구한다고 보겠다. 세계와의 갈등 구도를 지나 결국은 화합을 이루는 이야기는 바로 신화적 특성이다.

그러나 이 이야기들은 신화적 특성이 약화되는 모습을 보인다. 다른 이야기들에서 언니들에게 복수하고 끝나는 것은 신화적 특성이 이해되지 않는 시대 사람들의 사고방식을 보여준다. 당한 것에 대하여 복수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은 세계와 자아의 갈등이 화해에 이르지 않는 모습을 보여준다.

자아와 세계가 대립하여 어느 한쪽의 승리로 귀결될 때 전설 또는 민담이 된다. 이 이야기들은 자아가 일방적으로 승리하므로 민담적 귀결이라 볼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다. 그러기에는 자아의 활동이 너무 미약하다.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 외에는 자아가 능동적으로 하는 일이 없다.

자아나 세계가 일방적으로 승리하지 못하는 것은 그 사이에 샤먼이 개입해야 하기 때문이다. 자아의 활동을 확대시키지 않고, 또 세계의 일방적 힘을 용납하지도 않는다. 이는 이 이야기들이 이 둘 사이의 갈등을 샤먼이 중재하는 사회의 산물임을 말해준다.

이들 이야기에서 샤먼의 역할이 부정될 때 이야기는 이야기의 논리로 살아남을 것인데 그 변형 중의 하나로 생각해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구령덩당 신선비〉 또는 그리스의 〈싸이키와 큐피드〉 이야기이다. 여성 주인공이 세계와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과정을 그리는데 중점을 두는 방식인 것이다. 특히 그리스에서 이 싸움은 신과의 싸움에서도 자기 뜻을 관철하는 약한 아가씨의 이야기로 구성되어 전형적인 민담의 틀을 갖게 되었다.

Ⅲ. 샤먼 능력과 기능의 설화적 변모

많지 않은 작품 수임에도 변이가 나타나지만 〈뱀 남자〉 이야기는 죽은 사람을 살리는 화소를 두 번 되풀이한다. 첫 번째는 태초의 세계를 복원함으로써 아내를 재생시켰고 두 번째는 뱀 기름으로 언니를 재생시켰다. 바다 위 나무와 닭이라는 이미지로 구현되는 태초의 복원은 의례적이지만 뱀 기름으

로 망자를 재생한다는 것은 다분히 주술적이다. 복잡한 의례보다는 단순한 주술이 더 보편적이 되는 과정까지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이 설화는 〈구렁덩덩신선비〉처럼 뱀 남자와의 혼인이 있지만 혼인보다는 재생의 무게가 훨씬 크다고 하겠다. 그래서 이 설화는 〈구렁덩덩신선비〉와는 달리 혼인이나 여성의 성숙이라는 심리적 해석의 여지가 거의 없어 보인다. 그러나 〈구렁덩덩신선비〉에도 신화적이고 의례적인 흔적은 뚜렷하게 남아 있다. 김호성은 이 설화가 “뱀신을 모시는 여성 사제자의 풍농제의 상징을 담은 이야기이다.”라고 정리하였다.¹⁸⁾

우선 서대석이 지적한 대로 이 설화는 구렁이 신을 맞이하는 색시를 제의를 진행하는 무녀로 볼 수 있다. 할머니는 구렁이를 낳자 굴뚝 밑에 샷샷을 씌워 덮어놓는데, 이는 바로 터주 항아리에 샷샷 모양의 지분을 덮어놓고 터주신으로 섬기는 것을 그린 것이다. 그 업으로서의 구렁이 신을 알아보고 맞이하는 것이 셋째 딸이며, 그들의 혼례는 입무식이나 내림굿과 같은 성격으로 볼 수 있다.¹⁹⁾

이 과정에서 구렁이 즉 뱀 신랑이 집을 떠나버리자 색시는 남편을 찾기 위해 길을 나선다. 여기서는 중이 되어 떠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인제 여덟 폭 처매 마 한 폭 따가 고깔 짓고 두 폭 따가주 바랑 짓고, 그레가주 이래 지이가주고 인제 머리를 깎고 이래가주고 절에 중결이 해가주고.²⁰⁾

열두 폭 치매를 뜯어서 바랑 짓고 고깔 짓고 행전 짓고, 메고 메고 바랑 메고 씨고 씨고 고깔 씨고 짚고 짚고 구렁 짚고 집을 떠나갔어.²¹⁾

무조신인 바리공주도 유사하게 부모의 생명수를 구하러 저승으로 떠날 때 “사승포 고의 적삼, 오승포 둘우막이 짓고 쌍상토 짜고 세패랭이닷죽, 무쇠

18) 김호성, 「구렁덩덩신선비의 업신화적 성격」, 『한국무속학』 38집(한국무속학회, 2019), 103쪽.

19) 서대석, 앞의 논문, 196쪽.

20) 대계 7-12, 142쪽. 최순금 구연.

21) 입석재 전집7, 『한국구전설화, 전라북도 1』, 292쪽.

주랑 집으시고”²²⁾ 궤문 밖으로 나간다. 이 길이 그대로 저승으로 가는 길이다. 무당이 망자를 위해 감당해야 할 길이다. 김호성도 이계로 가기 위해 중의 복장을 하고 많은 과제를 수행하는 모습은 바리공주와 닮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²³⁾

중이 되는 것은 민중에게 불교가 투영되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중요한 것은 자기를 버리고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다. 이렇게 떠나서 색시가 겪는 일은 구더기를 씻고, 흰 빨래는 검게 검은 빨래는 희게 빼는 일이다. 이는 삶은 깨끗함만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더러움과 함께 있는 것이며, 흰 것과 검은 것은 나누어지지만 않고 서로 교통할 수 있어야 함을 자각하고 실천하는 것이다.²⁴⁾ 이것은 세속이 이분법의 논리를 벗어나는 신의 세계로의 진입이다. 이러한 과정을 이수한 색시는 드디어 이계로 들어선다.

아 그래 그럭허구 나닝께, 은복주께, 그 은복주께라능 게, 은 은식기에 덮는 뚜껑이 은복주께지요, 그걸 샘이다 등실등실 떠 주면서, “여기를 올라갈 것 같으면 만나다.”구 그래요, 그래 인제 ‘죽으면 대수냐?’구 하라는대루 저기 올라가서 인제 풍덩 빠지닝께 용궁에 들어가. 땅바닥에 발이 다, 보니까, 물은 간 곳 육구서 어느 고루거 각 솥을 대문 앞이 사랑 마당이 가 댔단 말여.²⁵⁾

색시는 은뽕지개(주발 뚜껑)를 타고 웅달샘에 빠지니 물 속 다른 세계에 이르렀다. 이러한 과정이 색시를 남편에게 이르게 하는 필요 과정이다. ‘여사제자가 신성한 존재를 받아들이는’²⁶⁾ 과정에서 자신이 새로이 태어나게 된다는 제의적 모티프를 이야기로 풀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이야기는 그렇게 남편과 만나 혼인하는 것으로 귀결되었다. 신화적인 맥락은 감춰지고

22) 적송지성·추엽옹, 심우성 옮김, 『조선무속의 연구』(동문선, 1991), 38쪽.

23) 김호성, 앞의 논문, 99쪽.

24) 신연우, 『구비 서사문학에 나타난 ‘빨래’ 모티프 비교 연구』, 『민속연구』 33(안동대학교 민속학연구소, 2016), 183~207쪽.

25) 『한국구비문학대계』 4-6, 185쪽, 조숙 구연.

26) 김호성, 앞의 논문, 102쪽.

결혼이 주제가 되었다. 남편과 만나서 신부 시험을 거쳐서 혼인에 이르는 것은 그만큼 민담적 주제로 변이되었다는 증거이다. 무녀로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역할을 하는 것을 남편을 만나 혼인하는 것으로 축소시키고 흥미 요소를 증대했다.

〈뱀 남자〉 설화에서는 남자가 길을 떠난다. 아내가 뱀 허물을 태우자 아내를 남겨두고 혼자 바다를 향해 떠난다. 임신한 아내에게 피낭나무 열매 하나와 하얀 알을 하나 주면서 이걸 언제나 지니고 다니라고 하고 떠났다. 그리고 아내는 언니들에 의해 물속에 빠져서 그 속에서 아이를 낳고 산다. 일년이 지나 남편이 돌아오는데 그 동안 자란 피낭나무 위에서 닭이 “뱀, 뱀” 하면서 울고 남편이 그 소리를 듣고 아내가 죽은 걸 알게 되었다. 남편이 아내를 물 속에서 구하는 방법은 우리나라 해안 지역 사령굿에서 죽은이의 머리 카락을 끌어올리는 것을 연상하게 한다. 뱀 남자는 아내를 구해오라고 한 남자를 밧줄에 묶어서 아래로 내려보냈다.

그러나 그 남자는 여자를 구해내지 못했다. 왜냐하면 그녀의 머리카락이 돌에 꼭 묶여 있었으며 이를 악어가 지키고 있었기 때문이다. 아내가 말했다. “악어야, 내 머리를 풀어줘.” “내가 도와줄 수는 있지. 그러나 너는 나에게 선물을 주어야 해. 그렇지 않으면 잡아먹어버릴거야.” 악어는 사롱(치마)과 윗옷 그리고 칼 하나를 달라고 했다.(220번, 468쪽)

남편은 이를 다 들어주었고 아내는 껌짝에 담겨서 위로 올라온다. 저승의 악어에게 공물을 주고 망자를 데려오는 남편은 죽은 자를 되살리는 무당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보여주었다. 이렇게 보면 〈뱀 남자〉에서는 남편이 무당의 역할을 하는 데 반해 〈구렁덩덩신선비〉에서는 색시가 그 역할을 했던 차이는 있지만, 〈뱀 남자〉에서는 망자를 되살리는 과정을 상세히 보여주었고, 〈구렁덩덩신선비〉에서는 색시가 여행을 통해서 무녀로서의 자격을 얻는 과정을 상세히 보여주었다고 할 수 있다.

여기서 색시가 여행을 통해 무당의 자질을 획득하고 그 역할을 하게 되는

것으로 미루어서, 뱀 남자의 경우에, 그 과정이 상세히 나타나지는 않지만, 일 년의 여행을 마치고 돌아왔기에 죽은 아내를 되살릴 수 있었다고 생각해 볼 수 있다. 그 여행은 그가 무당으로서 그런 능력을 지닐 수 있게 한 수련의 시간이었다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구렁덩덩신선비>의 색시가 여행을 통해서 영적인 능력을 획득하여 남편을 만나 결혼한 것처럼, 뱀 남자는 여행을 통해서 죽은 아내를 살릴 능력을 얻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 여행을 통해서 색시나 뱀남자는 샤먼으로서 새롭게 태어났다.

그런데 문제는 <뱀 남자>처럼 죽은 사람을 살려주는 샤먼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나오는 설화가 『하이누엘레』에 더 이상 나오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 혜정은 『하이누엘레』 전체 433편 이야기는 “다양한 형태로 만물의 탄생과 기원이 죽음을 바탕으로 하고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다고 정리하고, 이어서 “『하이누엘레』의 창세신화는 여타 창세신화와는 다르게 우주적 관념이나 창조신에 대한 관념은 매우 희박하다.”고도 지적하였다.²⁷⁾ 이 점은 ‘하이누엘레’ 설화의 고장 세람섬이 아직 창세신화나 창조신을 구비할만큼 발전한 사회는 아니었다는 점을 말해준다. 그뿐 아니라 아직 샤먼의 역할이 정립되지도 않은 구석기 시대의 면모를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저자들도 서문에서 이 이야기들은 태고시대의 이야기에서 벗어나는 이야기가 거의 없다는 점에서 놀랍다고 한다.²⁸⁾

샤먼의 역할과 관련해서 『하이누엘레』에서 주목할 설화는 죽은자의 나라에서 돌아온 사람들 이야기들과 정령 설화이다. 전자에는 ‘죽은 남편이 아내를 찾아오다’ 류와 ‘고아가 죽은 부모를 찾아 가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여자’ 류의 이야기가 많다.(160~192쪽) 이에 따르면 죽은자의 나라는 산자의 나라와 이어져 있다. 그 둘이 구분되어 있고 산자가 죽은자의 나라에 가고 싶어하지는 않지만 왕래가 가능하다. 그래서 죽은자를 되살리기 위한 무당이 필요하지 않다.

정령 이야기도 상당수 있는데(253~414쪽), 이는 정령들이 사람들의 생활

27) 앤젠, 니게마이어, 이혜정, 『하이누엘레』, 앞의 책, 788쪽. 「옴긴이의 말」

28) 같은 책, 72쪽.

에 지배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할리타라고 하는 정령이 마을을 몰살시키기도 하고, 마을 사람들이 여자 할리타를 죽이기도 한다. 저자들은 “이런 종류의 이야기들은 많은 부분 개인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²⁹⁾고 말했다. 이 점은 시사적이다. 즉 인도네시아 발리 섬의 설화 세계에는 산 자, 죽은 자, 정령이 모두 하나의 세계 속에서 살아가며, 산 자가 이들과 맺는 관계는 개인의 문제로 이해되고 있다는 것이다. 개인이 세계의 경이에 직접 부딪히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뱀 남자〉 설화는 각별하다. 주술적 수단을 이용해서 죽은 자를 살리는 매개자라는 생각은 다른 설화에서는 찾기 어렵기 때문이다. 가령 고아들이 죽은 부모를 찾아가자 부모가 아이들을 함께 살게 해주었다는 이야기가 다수 전하는데, 이는 결국 아이들도 죽었다는 이야기로 이해된다.³⁰⁾ 이외 다수의 동물 설화에서 동물, 정령, 인간은 서로 변하고 혼인도 하는데 이들 또한 서로 직접적인 관계를 통해서만 이루어진다. 대다수의 이야기들이 개인이 직접 경이로운 세계와 만나는 경험을 말한다. 그런 점에서 샤먼적 기능을 보여주는 〈뱀 남자〉이야기는 주목된다.

〈뱀 남자〉가 죽은 사람을 살리게 되는 것도 뱀이 갖고 있는 “죽음과 생식력 사이의 연관관계”³¹⁾ 때문일 것이다. 이는 창세신화의 성격을 구준하고 있는 것이다. 투왈레라는 신이 이 세상과 인간을 만들고 이승과 저승을 나누어 놓았다는 창세신화의 전개 뒤에, 산 자와 죽은 자의 세계는 나뉘었지만 뱀이라는 특별한 존재는 두 세계의 매개자로서의 기능을 한다는 것은 보편적인 생각을 공유하는 것이다. 이 매개 기능이 샤먼적 역할과 직결된다.

이에 반해 〈구렁덩덩 신선비〉에서는 남자가 뱀신랑이지만 샤먼의 역할을 하는 것은 색시로 상정되었다. 그러나 뱀신랑도 신으로 이해되지만 샤먼적 속성도 보여준다. 뱀이 삶과 죽음을 매개하는 존재라는 관점에서 신선비를 다시 보자면, 우선 그는 할머니에게서 태어났다는 점에 주목하게 된다. 생식

29) 같은 책, 256쪽.

30) 같은 책, 178쪽. 해설 참조.

31) 같은 책, 39쪽.

력이 소진된 할머니에게서 뱀으로 태어났다는 것은 뱀이 가지고 있는 생식력을 보여준다. 또, 이웃집 셋째 딸에게 장가들지 못하면 한 손에는 칼을 들고 한 손에는 불을 들고 나온 곳으로 돌아가겠다고 하는 것도 그가 삶과 죽음의 경계선을 오갈 수 있는 존재라는 점을 부각시킨다. 무엇보다도 그는 색시가 웅달샘에 빠져서 저 세계로 이행하도록 하는 존재라는 점을 주목할 수 있다. 색시가 샘에 빠져서 다른 세계로 가는 것은 죽음을 거쳐서 다른 존재로 태어나는 것을 상징한다. 이는 무당이 되는 필수적인 과정을 함축한다. 신랑은 결국 색시를 무당이 되는 길로 인도하는 존재라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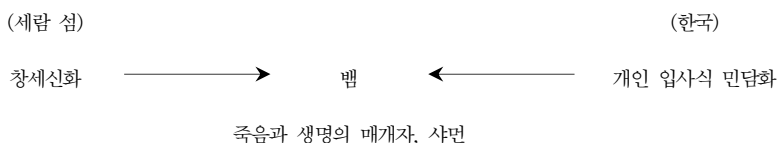
그럼에도 색시 또한 무당으로서의 기능을 잘 보여준다. 간짓대로 뱀신을 맞이하는 곳에 해당하는 뱀맛이의 제의적인 모습이라든지, 과거의 자기를 죽이고 삶의 과제들을 차례로 배워나가는 모습이며 웅달샘을 통하여 거듭난 존재로 다시 태어나는 것은 역시 무당이 되는 과정을 잘 보여준다.

다시 말하면 <구렁덩덩 신선비>설화는 무당의 모습을 이원화하여 보여주었다. 신랑의 서울로의 여행은 그가 샤먼적 기능에서 멀어져감을 보여준다. 후반부의 구렁이신랑은 신적인 기능을 잃고 그저 아내를 그리워하는 평범한 남자로 나타나고 오히려 어머니에게 매인 아들로 보인다. 색시의 여행은 갈수록 과거의 자기를 버리고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는 과정을 보여주어 크게 대조된다. 그런데 그 과정이 결국은 시집에 자기를 맞추는 여성적 삶의 과정으로 변모되었다.

이 점이 바로 <구렁덩덩 신선비>설화가 뱀 신을 맞이하는 신화에서 출발하였으나, 그를 맞이하는 무당의 입사담적 전환으로 강조점이 옮겨가고 나아가서는 무당이 아니라 색시의 혼인담으로 귀결되는 양상인 것이며, 이를 인도네시아의 <뱀 신랑> 설화를 통해 명확히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신이었던 뱀은 색시를 변모시키면서 자신도 샤먼적인 매개자의 역할을 하게 되었다. 남성신이 여성을 샤먼으로 인도하는 것은 제주도 <초공본풀이>에서 삼시왕이 유정승택따님아기를 무당으로 만드는 것과 유사하기도 하다.

요약하면, <뱀 신랑>이 창세신화적 면모를 떨구지 못한 채 샤먼의 기능을 세상에 나타내는 설화라면, <구렁덩덩 신선비> 설화는 샤먼적 역할이 약화되

며 결혼의 과정으로 치환되는 양상을 보여준다. 이는 한편으로는 우리나라의 경우 “바리데기”에서 보여주는 강력한 샤먼 신화로 강화되는 반면에, 이 이야기처럼 입사식의 민담으로 약화되는 양상을 보이는 쪽으로 가는 이원화가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다음과 같이 도식화할 수 있다.



IV. 맺음말

뱀이 가지고 있는 죽음과 생명의 이중성으로 인해 우리는 이 이야기들이 기본적으로 입사식을 반영하는 것으로 이해하게 된다. 〈뱀 남자〉설화는 뱀 남자가 입사식을 통해 무당의 능력을 가지게 되어 물속에 있는 망자를 되살리는 샤먼 의례를 구현하고 있고, 〈구렁덩덩신선비〉는 색시가 무당이 되는 과정을 잘 보여주지만 민담화되면서 무녀로서의 구실보다는 혼인으로 귀결되는 이야기로 전환되었다고 보인다. 〈뱀남자〉는 창세신화에서 보이는 생명의 탄생과 접속되어 있고, 〈구렁덩덩 신선비〉 설화는 보다 개인적인 삶의 전환을 보여주는 것으로 접속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 전환이 가능한 근거는 바로 입사식의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결혼이기 때문이다. 의례에 있어서는 비밀결사나 샤먼이 되는 종교적 의미의 입사식이 대표적이지만, 민담에서는 결혼이 입사식을 나타내는 가장 대표적인 화소이기 때문이다. 엘리아데의 연구로 널리 알려졌다시피, 창세신화는 태초의 창세를 노래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창세신화는 새로움이 요구될 때마다 반복되는 것이다. 창세의 모범을 반복함으로써 세계와 인간 자신을 새롭게 만든다는 관념이 지속되었다. 새해맞이굿, 입사식이나 치병 의례, 풍년기원굿에서도 창세신화를 소환한다.³²⁾

이렇게 보면 〈구렁덩덩신선비〉 설화를 신화적 해석과 결혼과 여성의 성숙 과정이라는 심리학적 해석이 동시에 가능한 이유를 이해할 수 있다. 이 둘은 동떨어진 것이 아니라 이 설화가 〈뱀 남자〉 설화와 같이 샤만의 행적을 그리는 유래를 가지고 있으면서 동시에 신화적 맥락이 약화되면서 민담화되어 생긴 결과임을 수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인도네시아 세람 섬의 〈뱀 남자〉 설화를 이해하면서 이를 통해 〈구렁덩덩신선비〉 해석의 이중성을 잘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관점은 〈구렁덩덩신선비〉를 넘어서 〈큐피드와 싸이키〉를 비롯해 유럽의 동종 설화에까지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아르네-톰슨의 ‘AT425, 잃어버린 남편을 찾아서’에 소속되는 여러 각편들이 같은 유래를 공유하고 있을 것 같다. 그러나 그 의미는 유형명에서처럼 잃어버린 남편 찾기에 국한되지 않고 더 오래된 것이어서, 원형적인 무속적 사고방식과 역사를 품고 있는 유서 깊은 설화임을 알 수 있다.

32) M. 엘리아테, 정진홍 역, 『우주의 역사』(현대사상사, 1984), 117~121쪽.

■ 참고문헌

-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국구비문학대계』,
 임석재 전집7, 『한국구전설화, 전라북도 1』, 평민사, 1990.
 광의숙, 「〈구렁덩덩신선비〉의 상징성 고찰」, 『국어국문학』 25, 문창어문학회, 1988.
 김산해, 『최초의 신화 길가메쉬 서사시』, 휴머니스트, 2005.
 김현선, 『한국의 창세신화』, 길벗, 1994.
김현우, 「〈구렁덩덩신선비〉와 서세람 섬 〈뱀남자〉(Der Schlangenmann)의 비교연구」, 한국구비문학
 회 2012년 추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2012. 11. 17. 경기대학교.
 김호성, 「〈구렁덩덩신선비〉의 업신화적 성격」, 『한국무속학』 38집, 한국무속학회, 2019.
 김환희, 「〈구렁덩덩신선비〉와 외국 뱀신랑설화의 서사구조와 상징성에 대한 비교문화적 고찰」, 『동화
 와 번역』 4, 건국대 동화와번역연구소, 2002.
 서대석, 「〈구렁덩덩 신선비〉의 신화적 성격」, 『고전문학연구』 제3집, 한국고전문학연구회, 1986.
 신연우, 「〈구렁덩덩신선비〉의 결혼 상징과 의미」,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25, 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12.
신영진, 「구비 서사문학에 나타난 ‘빨래’ 모티프 비교 연구」, 『민속연구』 33, 안동대학교 민속학연구소,
 2016.
 신해진, 「〈구렁덩덩신선비〉의 상징성－여성의식세계를 중심으로」, 『한국민속학』 27, 민속학회, 1995.
 이기대, 「〈구렁덩덩신선비〉의 심리적 고찰」, 우리어문학회 편, 『한국문학과 심리주의』, 우리어문학회,
 2001.
 임석재, 「구렁덩덩 신선비 설화와 큐피드 싸이키 설화와의 대비」, 구비문학국제연구발표회 개요. 인하대
 학교 인문과학연구소.
 이필영, 『샤머니즘의 종교사상』, 한남대학교 출판부, 1988.
 적송지성 추엽용, 심우성 옮김, 『조선무속의 연구』, 동문선, 1991.
 아돌프 예젠 · 헤르만 니게마이어, 이혜정 옮김, 『하이누엘레 신화』, 뮤진트리, 2014.
 루키우스 아플레이우스, 송병선 역, 『황금당나귀』, 매직하우스, 2008.
 스티스 톰슨, 윤승준 · 최광식 공역, 『설화학원론』, 계명문화사, 1992.
 우노 하르바, 박재양 옮김, 『샤머니즘의 세계』, 보고사, 2014.
 조셉 캠벨, 이진구 옮김, 『신의 가면 1, 원시신화』, 까치, 2003.
 미르치아 엘리아데, 이윤기 옮김, 『샤머니즘』, 까치, 1996.
 M. 엘리아데, 정진홍 역, 『우주의 역사』, 현대사상사, 1984.

Narrative Transformation of the Korean Tale <Serpent Husband> and Indonesian <Snake Man>

Shin, YeonWoo*

The folktale of “Gureungdungdung Shinseonbi” is famous not only for us but also for the world. It is listed in the category “AT425, The Search for the Lost Husband” in the Arne-Thomson category. In 1937, Jensen and Niggemeyer investigated and reported several tales, “Snake Man” or “Snake Husband,” from a primitive tribe living on Seram Island in Indonesia’s Moluka Islands. In the story of “Snake Man” handed down from this primitive tribe, it has pixels like our “Gureungdungdung Shinseonbi” or the folk tales of Greece and France. I understand that the confrontation between this world and the underworld and the subject of transportation are better revealed and I want to show the process. “Shinseonbi” is interpreted as a myth or as a psychology of marriage and female maturity, and you can understand why through the <Snake Man> story.

Compared to “Gureungdungdung Shinseonbi” the big framework for the youngest daughter to marry the snake groom is the same, but we do not see the pixel that the sisters kill the youngest and revive the dead sister. There was a time when animals or nature and humans were one. They could marry each other. There was an opportunity for humans to take off their animal nature. This can be referred to as a culture represented by food. In this way, man and nature are completely separated. However, humans, who became more conscious of the existential problem of death, demanded the existence of

* Seoul National University of Technology

Shaman who could overcome death. A person with both animal and human experiences played the role of Shaman. This folktale can be understood as a history of narrating the historical development that the residents of Seram Island have experienced over the years. It is thought that this is the reason why this narrative is short, simple, and deeply interested.

The legend of “Gureungdungdung Shinseonbi” showed the appearance of a shaman in a dual way. The groom’s trip to Seoul shows him moving away from the shamanic function. In the second half, the snake groom loses his divine function and appears as an ordinary man who simply misses his wife, and rather appears to be a son bound by his mother. Bride’s journey is in great contrast as it shows the process of abandoning the past self and being reborn as a new being. However, in the end, the process was transformed into a feminine life process that fits itself into a collection of poems.

In summary, if “Snake Man” is a story that shows the function of shaman to the world without losing its mythical aspect, the “Gureungdungdung Shinseonbi” story shows that the role of shaman is weakened and replaced by the process of marriage. On the one hand, while Korea is reinforced by the strong shaman myth shown in “Baridegi,” it can be seen that dualization has been achieved in the direction of weakening into the folktale of the initiation ceremony.

[Key Words] “Gureungdungdung Shinseonbi”, “AT425, The Search for the Lost Husband”, “Snake Man”, Seram Island in Indonesia, shaman